

강원도정 소식

출산장려 열기 후끈

‘기업과 함께 하는 저출산 극복 실천대회’

0... 강원도는 ‘일과 가정의 양립 정책’을 위한 출산 친화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17일 오전 10시 춘천 베어스 관광호텔에서 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 최문순 도지사, 18개 시장·군수와 기업체 CEO가 참석한 가운데 ‘기업과 함께 하는 저출산 극복 실천대회 강원 CEO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강원도내 상시 근로자가 100인 이상 기업체 CEO와 시장·군수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의 ‘저출산시대 기업의 역할’에 대한 기조강연을 들었다.

이어 △일·가정 양립을 위한 대화의 장 만들기 △예고없는 회식 안하기 △정례적인 패밀리데이 실시하기 등 3대 실천과제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와 함께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한 도내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시·군별 출산 친화 선도 대표기업 22개 업체 CEO와 보건복지부·강원도·18개 시·군이 ‘일·가정 양립 기업문화 조성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최문순 도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오늘 도내 기업체와의 출산친화 업무협약(MOU)을 통해 지역 기업들이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출산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데 적극 앞장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강원도가 앞장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펼쳐 나가겠다” 밝혔다.

강원도는 올해 임신·출산 장려를 위해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영유아 보육료 지원,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회인식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 전국에서 유일하게 셋째이상 자녀에 대해 양육수당지원, 고등학교 입학금 및 등록금 지원, 대학생 입학금 지원 사업 등 1,55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최광호 기자

정가/소식

한나라당 권역별 순회집회 가져

0...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6일 강원도당 3층 회의실에서 권성동 강원도당 위원장 직무대행을 비롯해 당협위원장 및 도당 주요당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권역별 순회 집회를 갖고, 당 쇄신 방향 및 전당대회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한나라당은 이어 7월 4일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열릴 예정인 전당대회를 앞두고, 22일 원주에서 핵심당원 연수를 개최하고, 7월1일에는 대표최고위원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후보자 비전 강원발표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최광호 기자

민주당 도당 사무처 직제 개편

0...민주당 강원도당(위원장 최종원)은 최근 각종 선거를 통해 변화된 도내 정치지형과 높아진 도민의 목소리를 충실히 수행하고, 이에 대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도당 사무처에 정책·기획국을 신설하는 등 사무처 직제를 개편했다고 밝혔다.

당과 당 소속 광역·기초단체장과의 당정협의 및 소속 지방의원과의 업무협조를 담당하게 될 정책·기획국에는 김석현 전 조직국장이 임명됐다.

조직국장에는 조창배 전 총무국장을 임명하고, 내년 총선과 대선을 대비해 당내 조직 정비 및 대외 접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최광호 기자

“설악권 발전 큰 그림 그리겠다”

신창현 전 의왕시장 총선 출마의사 밝혀 ... 민주당 경선 참여

내년 4월 실시되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설악권에서도 총선 열기가 서서히 달아오르는 가운데, 속초 출신으로 민선 초대 의왕시장을 지낸 신창현씨(59세, 사진)가 출마 의사를 밝혔다.

신창현 전 의왕시장은 지난 17일 “서울에서 살고 다행히 기량으로 우리 고장 설악권의 발전을 위해 봉사하기 위해 민주당 후보로 출마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고성을 비롯한 속초, 양양은 휴 속에 묻혀 있는 진주와 같은 지역으로, 이제는 큰 틀에서 설악권 발전의 큰 그림을 그려야 할 때”라며 “특히 접경지역인 고성군의 잠재력을 활성화해 남북협력 시대 국가발전의 새로운 청사진을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신창현 전 의왕시장은 자신의 장점으로 풍부한 행정경험과 청와대 및 환경부 인맥, 민주당 인사들과



의 인연 및 활동을 꼽았다.

실제로 그는 민선 초대 의왕시장을 비롯해 청와대 환경비서관과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 등 굵직한 공직을 역임했으며, 재임기간 청초호와 영랑호 정비사업 국비 지원 등을 이끌어 냈다.

당 활동으로는 1988년 9월 평민당 전문위원 공채 1기로 입당해

김대중 대통령후보 선거공약 개발, 의왕·과천 선거구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후보, 민주당 최성 고양시장 후보시절 정책총괄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민주당 소속인 송훈석 의원 및 이동기 지역위원장과 경선 구도와 관련해서는 “세분 모두 충분히 자격이 있는 훌륭한 분들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세분뿐만 아니라 더 많은 지역인재들이 ‘슈퍼스타 K’ 또는 ‘나는 가수다’ 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선 구도를 통해 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겠다”고 했다.

속초고와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행정학과를 졸업했으며,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침해분과 조정위원을 역임했다. 현재 환경분쟁연구소 소장 겸 행정안전부 갈등관리위원회 위원장, 민주당 환경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다. 최광호 기자

고성군노인복지회관 마사회 기금 지원

송훈석 국회의원 밝혀 ... 12인승 스타렉스 지원 예정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민주당 송훈석 국회의원(속초-고성-양양)은 2011년 한국마사회 농어촌복지증진 기부금 공모사업에 속초, 고성, 양양지역 사회복지 시설이 각각 1개 기관씩 총 3곳이 선정돼 차량 및 복지사업비 등 기부금사업을 지원받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속초, 고성, 양양에 선정된 마사회 기부금 지원 대상 사회

복지시설은 속초시 장사동 소재 청해학교, 고성군 간성을 소재 고성군노인복지회관, 양양군 양양읍 남문2리 소재 양양군 수화통역센터 등 3개 복지시설이다.

속초시 청해학교의 경우 기부금 지원사업으로 1천만원 한도에서 최신형 컴퓨터가 지원될 예정이고, 고성군노인복지회관과 양양군 수화통역센터의 경우 사랑의 황금마차(복지차량, 12인승 스타렉스)가

지원될 예정이다.

송훈석 의원은 “그동안 지역의 노인복지회관과 장애인센터 등 복지시설이 차량부족과 재정적 어려움으로 본연의 교육과 복지활동 등 기관운영에 어려움을 겪어 왔는데 이번에 마사회 기부금 지원사업 대상기관으로 선정돼 어려움이 해소되고, 기관운영에 큰 보탬이 돼서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광호 기자

고성군·속초해경 해수욕장 안전관리 업무협약

고성군과 속초해양경찰서는 지난 15일 오후 3시30분 해수욕장 안전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속초해경 관계자는 “지난해 속초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데 이어 두번째로 고성군과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며 “유관기관 상호간 적극적인 업무협력을 통해 물놀이 사고 ZERO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해변 안전관리 선도기관으로 자리매김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성군 관내 해수욕장은 화진포, 송지호, 삼포해변 등 총 26개로서 지난해에 이들 해수욕장을 찾은 물놀이객은 153만명으로 집계됐으며, 올해에는 이보다 약 10% 증가한 약 165만명이 고성군 관내 해수욕장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원광연 기자



고성군과 속초해양경찰서는 지난 15일 해수욕장 안전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식(MOU)을 체결했다.